

전남도 정부 대형 공모 유치 전력투구

열악한 재정 극복 별도부서 신설...민선 7기 1조 유치
올 하반기 200억대 사업 준비...내년 국비확보도 사활

당정이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기로 하면서 전라도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정부 공모사업 유치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특히 전라도는 민선 7기 출범이후 지난 1년동안 국책 공모사업으로 1조원에 달하는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해 향후 성과가 주목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올 하반기 7개 주요 사업 200억원 확보를 목표로, 대정부 설득노력을 개발하고 있다.

사업별로는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가모집 9억6000만원 을 시작으로,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30억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20억원, 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 15억원, 스마트산단 신규선정(예산 미정),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 40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과 인구 유입 효과를 낼 수 있는 생활SOC 분야여서 도는 사업유치에 총력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도 예산에 역대 최대 규모인 7조원 규모의 국비확보 목표액을 설정했다.

신규사업은 147건 9311억원, 계속사업은 80건 1조3515억원 등이다.

도는 이같은 국책사업 및 국고 확보를 위해 지난해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모사업지원팀'을 신설했다.

도는 또 행정 조직력의 시너지를 위해 지난달 공모사업지원팀을 예산담당관실로 배치하고 예산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비확보 업무와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또한 업무 범위를 넓혀 22개 시군의 정부 공모사업 참여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스마트팜 혁신밸리(1,100억원),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182억원), 청년친화형 산업단지(2,679억원), 어촌뉴딜300(2,313억원), 초소형 전기차산업 및 서비스육성 실증지원사업(480억원), 도시재생뉴딜(550억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280억원),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494억원) 등 1조원에 달하는 국고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공모 사업은 더 수준 높은 전략적인 준비와 대응 역량이 필요하다"며 "국책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수시로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움직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알림

2019 유라시아 세계한민족 오토렐리 대장정 광주·전남행사

광주·전남 정론지 전남매일이 창간 3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한민족 오토렐리 대장정' 광주·전남행사를 주최합니다.

고려인오토렐리조직위, 동북아평화연대오토렐리집행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7개국의 한민족 구성원이 45여일동안 7개국 총 3만여km에 걸쳐 산재한 항일 유적지와 이주 고려인, 중국 동포의 삶의 현장을 탐방하면서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할 것입니다.

이동경로는 모스크바→남러시아 블고그라드→가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러시아→몽골→중국→평양→개성→판문점→서울→목포→부산→동해→블라디보스톡→모스크바 등 유라시아와 한반도를 중주합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19일 국립 5·18민주묘지에 참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민주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광주거주 고려인과의 대화 등 행사가 준비돼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민족 오토렐리 대장정 광주·전남행사'

- ▲ 8월 19일(월)
- 15시 50분: 광주 서구청 환영식
- 17시 00분: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 18시 30분: 환영 만찬 및 고려인 간담회 (라페스타 웨딩홀)
- ▲ 20일(화) 목포 해남 순천

- 주최: 전남매일
- 주관: 고려인오토렐리조직위원회, 동북아평화연대오토렐리집행위원회
- 후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청, 전라남도



시민이 만든 광복절 현수막 제74주년 8·15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의 한 거리에 'NO! 아베, OK! 광복' 문구가 걸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지역위원회가 시민들의 모금을 받아 내건 이 현수막 하단에는 모금에 동참한 시민들의 이름이 각각 적혀있다. /김태극 기자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 속도

영·호남 14개 지자체 실무회의

광주시와 대구시 등 영·호남지역 6개 광역지자체와 8개 기초지자체가 광주-대구를 1시간 생활권으로 잇는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에 속도를 낸다.

광주시는 13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서 제5차 달빛내륙철도 경유지 지자체 실무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9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을 앞두고 사전협의를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와 대구시를 비롯 전남·전북·경남·경북 등 6개 광역지자체와 담양·순창·

남원·장수·함양·거창·합천·고령 등 8개 경유지 기초지자체 담당과장과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개최 준비를 위한 지자체별 역할과 국토부가 올해 하반기에 착수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한 대책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그동안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광주·대구 및 경유지 지자체와 해당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로 올해 정부예산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을 확보했으며, 국토부가 지난 6월 용역에 착수해 사업추진이 가시화 됐다.

/황애란 기자

광복절 대체휴무 내일 신문 쉽니다

광복절 경축식 천안 독립기념관서 열린다

▶ 관련기사 4·7·12·18면

광복 제74주년인 올해 광복절 정부경축식은 15년 만에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광복절인 오는 15일 오전 10시 독립기념관에서 독립유공자, 각 계각중 국민, 사회단체 대표, 주한외교관 등 1,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경축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독립기념관 광복절 정부경축식 개최는 2004년 이후 처음"이라며

"국경일 행사의 상징성과 현장성을 살려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축식은 '우리가 되찾은 빛, 함께 밝혀 갈 길'이 주제다. 이 문장의 글씨체는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서 필체를 모아 만들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선열들의 독립 염원의 뜻을 이어받아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광복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서울=강병은 기자

피부균형을 리셋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LIMITED 설화수 윤조에센스

피부노화, 시간이 아닌 피부 속 불균형의 문제
자음단™을 담은 윤조에센스가 흔들리는 피부균형을 리셋해
5가지 젊음의 지표*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젊음의 밸런스로 다시 힘 있게 깨어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자음단, 생기, 영양, 투명, 탄력

Sulwhasoo

*설화수 플레그신스토퍼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키오스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플레그신스토퍼: 02-541-9270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